

이 땅우에 인민의 광원을 일떠세우기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해방후 보통강개수공사의 첫 삽을 뜨시어 인민이 주인된 이 땅우에 위대한 전변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 때로부터 어느덧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도 귀가울이던 해방된 이듬해 보통강개수공사의 착공식장에 나오시어 하신 격동적인 격려사에서 전체 평양시민들이 우리의 민주수도 평양을 모범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 애국적인 자연개조사업에서 위대한 힘을 발휘하리라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하시며 공사참가자들과 평양시민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듯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받기하시고 몸소 지도하시어 진행된 보통강개수공사는 공화국의 강화건설 및 정력사업을 비롯한 자연개조사업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위대한 력사적사건이다.

해방전 보통강은 해마다 장마철에 조금만 비가 내려도 큰물이 쳐서 보통강만 특히 토성량과 서평양 및 대

라령(당시)일대는 물바다로 되었고 인민들은 물란리를 겪었다. 1942년에 있는 큰물때만 하여도 성안의 5만여명의 주민들이 인명피해를 비롯한 많은 물질적피해를 당하였으며 시주변의 2 000여호의 농가도 물에 잠겨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하기에 사람들은 보통강을 제련의 강, 원한의 강, 눈물의 강, 한숨의 강이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 보통강을 오가시며 이곳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가슴 사무치게 보시었고 괴어진 함일전의 날에도 보통강변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잊지 못해하시었다.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신 그해 12월 어느날 개원을 앞둔 평양학원을 현지지도하시고 돌아오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팔골다리를 건너시어 길 왼쪽에 있는 봉화산으로 오르는 갈림길에서 차를 멈추시었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라령일대에 있는 관자집들과 초라한 집

들을 바라보시며 이 고장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고 하시며 못내 가슴아파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주름잡힌 이 고장 사람들의 얼굴에도 환한 빛을 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몸소 보통강개수공사를 받기하시었다. 비범한 통찰력과 천리혜안의 예지로 보통강개수공사 설계의 결함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로지 봉화산정점에 오르시어 아무리 큰비가 와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만년대개의 설계안도 가르쳐주시었으며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에 참가하시어는 격려사를 하시고 몸소 첫삽을 뜨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신 첫 삽은 해방된 이 땅우에 부강한 새 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의 첫 삽, 제련의 력사에 중시부를 찍고 조국의 통성변영과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뜻깊은 첫삽이였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은덕을 길이길이 전하기 위하여 보통강만에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을 세웠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 날 보통강은 영원히 물란리를 모르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만이 꽃피는 락원의 강으로 전변되었다.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보통강강이 솟을 더 살기 좋은 인민의 명당으로 바꾸어주시려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시기에 보통강정리공사를 인민군대가 맡아하도록 하여 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보통강반의 명당자리에 만수교고기상정위치를 잡아주시고 훌륭히 완공되도록 하여주시였을뿐 아니라 만수교청량로점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보수하도록 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 주신 창조와 건설의 대변영기는 보통강반에 보통강수산물상점, 미세상점, 만수교고기상점,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등 상업봉사시설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워 보통강반의 경관을 더욱 눈부시게 하고

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인민의 웃음소리 높아질 그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시기 위해 몸소 밭기자, 설계가,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현대적인 보통강안다락식주택구집을 앞장에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지난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기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문명과 부흥을 상징하는 만복의 보금자리로 솟아올랐다.

평양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라는것이 반영되면서도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이 문명향상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버리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건설부문앞에 나선 가장 주된 과업의 하나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지난해에 시발을 댄 우리 당의 숙원사업인 평양시 살림집전망표수행의 두번째 공시안 동시에 이 지구에 새로운 현대적도시구획을 일떠세우기 위한 첫단계의 건설입니다.》

《모든 건설대상들이 다

얼마전에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화성지구엔 눈부신 새 거리가 일떠서고 인민들의 흥겨운 새집들이풍경이 펼쳐져 온 평양시, 아니 온 나라를 흥성있게 했다.

이 황홀하고 눈부신 화곡을 바라보는 인민의 격동된 심장마다에는 수도 평양에 5만세대 살림집을 일떠세우기 위한 뜻깊은 착공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향상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버리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건설부문앞에 나선 가장 주된 과업의 하나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지난해에 시발을 댄 우리 당의 숙원사업인 평양시 살림집전망표수행의 두번째 공시안 동시에 이 지구에 새로운 현대적도시구획을 일떠세우기 위한 첫단계의 건설입니다.》

《모든 건설대상들이 다

수도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것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수도, 어머니평양을 위한것이기때 우리 당은 다같이 흥겨운 새집들이풍경이 펼쳐져 온 평양시, 아니 온 나라를 흥성있게 했다.

이 황홀하고 눈부신 화곡을 바라보는 인민의 격동된 심장마다에는 수도 평양에 5만세대 살림집을 일떠세우기 위한 뜻깊은 착공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향상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버리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건설부문앞에 나선 가장 주된 과업의 하나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지난해에 시발을 댄 우리 당의 숙원사업인 평양시 살림집전망표수행의 두번째 공시안 동시에 이 지구에 새로운 현대적도시구획을 일떠세우기 위한 첫단계의 건설입니다.》

《모든 건설대상들이 다

세기는 바뀌었지만 해방된 이듬해 보통강개수공사 착공식장에서 하시던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인민을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시려고 끝없는 사색과 로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연설로 승화되어 이 강산에 끝없이 울려가고있다.

그 사랑의 음성이 울려 퍼진 곳마다에 인민의 새 거리, 인민사랑의 기념비들이 솟아나고 인민이 만복을 누릴 사회주의리상향은 눈앞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본사기자 김 철



절세위인께 인민이 삼가 드린 칭호

사상리론의 거장

력사에 류례없는 미증유의 국난을 박차고 공화국을 천하제일 강국, 천하제일라 원으로 일떠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공화국인민 누구나 마음속진정을 담아 삼가 드린 또 하나의 불멸의 칭호가 있다.

걸출한 사상리론가, 사상리론의 거장!

인민이 드린 이 칭호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만고절세의 위인상이 뚜렷이 어려있다.

지금 이 지구상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좌왕우왕하며 궤멸과 좌절을 겪고있는가. 그것은 국가를 밝은 앞날로 건인하는 탁월한 사상리론적구, 과학적인 지침이 없기때문이다.

사회정치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 시대와 인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상리론을 제시한다는것은 보통의 지식과 일가견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력사에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사회정치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해답을 주어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치가, 위인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사

상리론들은 어느한 분야나 당대에 국한된것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의 행복과 국가의 부흥발전을 위한 영원불멸할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신 사상리론의 영재, 불세출의 위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리론들을 빛나게 계승하시고 발전공화화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천리혜안의 예지로 우리 인민과 국가가 나아가길 완히 밝혀주시는 사상리론의 거장 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을 이끌어오신 나날은 위대한 사상리론의 변혁적외력이 뚜렷이 각인된 격동의 날과 달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층에서 자주,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것을 주제혁명의 백년대개의 전략으로 천명하시었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를 최고강령으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내세우시였으며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불멸의 지침들과 투쟁방략들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새시대 당건설로선, 전당강화의 3대축에 관한 사상,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 애국주의에 관한 사상, 혁명적투쟁건설에 관한 사상,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한 수많은 사상리론들은 공화국을 더 큰

성공과 승리로 떠미는 전투적기치이고 강위력한 무기이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일심단결과 불멸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사상, 우리가 지향하는 강국은 당의 인민적시책이 현실로 꽃피고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마음껏 누려가는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국가라는 사상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관한 사상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신것이다.

인민판, 인민철학의 최고 정화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이라는 사상,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사상, 자강력제일주의에 관한 사상,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제강국으로 빛내일데 대한 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건축에 구현할데 대한 사상 등 과학적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들이 있어 공화국은 복잡다단하고 예측불능한 오늘의 형세속에서도 사소한 탈선이나 담보, 철회와 좌절을 모르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용진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천제적인 사상리론가, 사상리론의 거장, 만고절세위인으로 칭송하며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따르고있는것이다.

김 금 화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나날에

공장구내에 꽃주단을 띄우고싶다

주제101(2012)년 5월 1일, 온 나라 인민들이 명절의 한때를 즐기고있던 그날에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 어느한 공장에 새로 일떠선 강성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깊은 산간오지에 일떠선 강성원의 전경은 변화한 도시 한복판에나 서있을상실은 몇쟁이건물, 흙잡을데 없이 훌륭한 문화봉사기지의 모습이였던것이다.

불과 몇달전만 해도 풀조차 서있었던 강성원은 그해 1월 땀만 강추위로 마다하지 않고 공장을 찾으시어 건

자신의 소원이 풀린 날

주제102(2013)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다.

그해 5월 비바리는 곳은 날에 그이를 사업소에 모신였던 송구함이 아직도 가슴속에 울어져있었는데 또다시 찬바람부는 때에 그이를 모시고 된것으로 하여 일군

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여기에 올 때마다 저절로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난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들어 키워주시고 넘겨주시는 우리 로동계급인데 이 공장 로동계급을 위하여 공장구내에 꽃주단을 띄우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올 때마다 저절로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난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들어 키워주시고 넘겨주시는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여 공장구내에 꽃주단을 띄우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강성원의 여러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

주제104(2015)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성계약종합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마중나온 일군들의 손을 정답게 잡아주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수액공장이 현대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지난해 시기보다 10배에 달하는 여러가지 수액야품을 생산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뻐하고,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했다고 높이

소원이 풀린 날이라고, 인민들과 군인들을 위하여 마음이 지극하면 그 어디서나 희한한 물고기풍년을 안아올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

치하시였다.

격정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 찾아가는 곳마다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것을 볼 때마다 혁명하는 보람을 가슴부듯이 느끼게 된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해주고싶은 심정이며 그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형의 강국》

인민의 나라,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가장 명백한 부름이다.

자기의 국호에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공화국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력리념으로 삼고 인민들의 영명과 생활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맡아안고 꽃피워주는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려왔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화국에 대하여 격찬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쿠웨이트신문 《타임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전 인류가 리상으로 그

려보는 인민의 나라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국호와 마찬가지로 인민이라는 이름이 불리우는 것이 수없이 많다. 이것은 사회주의조선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투철한 의장의 반영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과 같은 구호를, (인민의 심부름꾼), (인민의 행복)과 같은 시대어들과 더불어 온 사회에 인민사랑의 기풍이 차 넘쳐있는것이 바로 조선식사회주의의 특징이다.》

민주공화국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불레텐은 《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인 주제사상을 구현하고있다. 이러한 사회주의가

완전히 새로운 형의 강국이 되며 그 어떤 대국도 지닐수 없는 거대한 힘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인민의 나라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형의 강국, 그 어떤 대국도 지닐수 없는 거대한 힘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인민의 나라.

세인이 격찬하고있는것처럼 공화국이 민방에 빛을 뿌리는 인민의 나라로 될수 있는것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 인민의 아버지인 김정은이였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오늘날 행성에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 계시는분은 차름아닌 조선의 김정은령도자이시다. 그의 품모는 한마디로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다. 김정은령도자이시야말로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닌분 이시다.》, 《김정은령도자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현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국가지도자이시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일관해 구현해나가도록 이끌신다.》 등의 위인칭송의 목소리들이 행성을 진감하며 끝없이 울려지고있다.

본사기자